

4단원

- 한 번 용해 평형에 도달하면 용질을 더 넣어도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일정하다 (더 넣은 용질도 용해한다는 것 잊지 말기 → 원래 용해되는 용질의 용해량은 줄어든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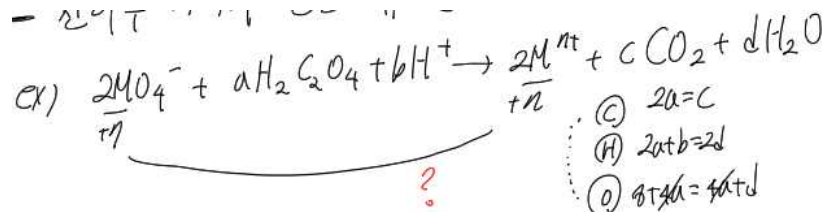
$$- \frac{[H^+]}{[OH^-]} \text{ or } \frac{[OH^-]}{[H^+]} = 10^2 \text{ (2는 정수일 때)}$$

$$= \frac{10^{-1+\frac{2}{2}}}{10^{-1-\frac{2}{2}}}$$

- 중화반응(액성 파악 중요)
- 1. 몰 농도가 나오면 부피랑 곱한다. (단, 몰농도가 서로 관계없는 미지수인 경우는 곱하면 더 복잡하다)
- 2. mL = L랑 동일 취급해라. 즉, $MV(L) = MV(mL) = n$
이를 통해 이온의 개수를 구해라
- 3. 혼합 유형 : 부피 위에 슬래시를 해라
주입 유형 1) 중화점까지 1가가 들어가면 이온 수 일정
2) 초기 액성 + 산 → 초기 액성 = 염기일 가능성 높음
3) 초기 액성 + 염기 → 초기 액성 = 산일 가능성 높음
4) 개수가 일정한 이온에 주목하라
5)



- 6) 몰농도 하나라도 미지수가 아니면 몰농도 이용
- 7) 파악이 잘 안 되는 조건은 전하량을 이용하라
- 산화수 파악이 안 될 때 원자수를 따져라



- 용질의 질량 / 개수 당 용해되는 열량(Q)는 고정